

가

강릉 033. 651. 1385
거제 055. 682. 4950
경주 054. 772. 8141
고양 031. 919. 4040
광명 02. 895. 1966
광양 061. 762. 0012
광주 062. 524. 3511
군산 063. 462. 4491
김해 055. 332. 6000

나

남양주 031. 577. 7762
남원 063. 632. 7002
논산 041. 736. 7393

다

대구 053. 652. 0070
대전 042. 254. 3035
동해 033. 531. 3007

마

마산 055. 246. 8746
목포 061. 242. 1611

바

부산 051. 441. 2221
부천 032. 668. 9700

사

사천 055. 833. 9981
서귀포 064. 762. 1400
서울 02. 3705. 6000
서천 041. 951. 6400
성남 031. 701. 2501
속초 033. 635. 8663
수원 031. 252. 5111
순천 061. 744. 7990

아

안동 054. 854. 5482
안산 031. 483. 6536
안양 031. 455. 2700
양산 055. 367. 1144
여수 061. 654. 2161
경주 054. 772. 8141
울산 052. 247. 3520
원주 033. 742. 6090
의정부 031. 853. 6332
익산 063. 857. 8910
인천 032. 424. 0524

자

전주 063. 224. 5501
제주 064. 711. 8325
제천 043. 646. 6009
조치원 041. 865. 2432
증평
진주 055. 753. 6133
진해 055. 542. 0020

차

창원 055. 283. 9488
천안 041. 575. 0961
청주 043. 265. 3700
춘천 033. 254. 4878
충주 043. 848. 3240

타

통영 055. 641. 2537

파

파주 031. 945. 5998
평택 031. 651. 7701
포항 054. 274. 4444

하

하남 031. 793. 7771

준비회

밀양



모란기다림
온몸으로 맞이한다, 행복

기나긴 겨울, 남도에서 들리는 매화꽃 병그러지는 소리. 개울가 얼음 밑에서 다가오는 봄 발자국. 그 개울, 그 강둑에서 평화롭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까르르.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들

● 천양희

올라갈 길이 없고
내려갈 길도 없는 들

그래서
넓이를 가지는 들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
더 넓은 들



경칩 지나 곧 춘분이군요.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는 절기, 음양이 반반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입니다. 봄보리를 내고 쟁기로 논을 갈며 담장을 고치던 선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들나물을 캐 먹으며 배고픔을 견디다 보면 어느 새 연초록 들판이 앞섬을 열고 제 몸을 풀어내는 이유를. 시인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더 넓은 들'이라고 경양하지만 그것이 다 '올라갈 길'이나 '내려갈 길' 없는 저 들의 몸에서 나온 품이라는 것을.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저 들의 넓은 돌레를 따스게 안아보고 싶어집니다.

● 고두현 시인

표지 류연복

판화가이며 서예가이자 시인인 류연복 선생님은 1980년대 벽화 운동, 민중 목판화 운동의 중심인물이자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 판화로 유명하다. 2008년 YWCA 독도사랑 캠페인에도 판화엽서로 함께하였으며, 현재 안성에 살면서 작품활동과 함께 환경운동, 공동체운동에 몸담고 있다.

Contents

- 02 • 시·시인·시심 _ 들 | 천양희 | 고두현
- 04 • YWCA 현장 속으로
- 06 • 되찾은 영성, 울림 |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나의 정의를 내려놓기
- 08 • 연간기획 _ 청정세상 I _ 청년정의운동, '자치'가 정의다 | 양선희
- 11 • 청정세상 II _ 내 이름은 39등이 아니라 김철수다 | 청년운동팀
- 14 • 청정세상 III _ 위기에 처한 청소년 교육 패러다임 | 전효관
- 17 • 제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 18 • 줄인 _ Y의 새로운 리더, 설레는 포부
- 18 • 5부 지역위원장과 함께하는 YWCA 지역운동
- 20 • 회원YWCA 신입회장 소개
- 22 • Y-틴 전국협의회 신입임원 각오
- 23 • 인터넷방송국 YWBS 1기 운영진 소개
- 25 • 행복한 불편 _ 친환경농산물과 무상급식 | 생명운동팀
- 26 • Y에 바치는 연가 _ 따뜻한 사랑의 자기장이 흐르는 YWCA | 오영란
- 28 • 회원 이야기 _ 새로운 부모학교의 시작 | 여진경
- 29 • Y-돋보기 _ 너 대단한 스마트폰아, 내 가족 돌리도 | 장차현실
- 30 • 문화공감 _ '두분 토론', 희화화가 주는 희한한 재미 | 김지숙
- 32 • 이슈 따라잡기 _ 질병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축산 | 권영근
- 35 • 세계 속의 한국YWCA_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다 | 세계대회 준비팀
- 38 • 신간 소개
- 39 • 성명서 _ 구지역 사태 해결을 바라는 한국YWCA 입장
- 40 • 3월의 YWCA
- 42 • 연합회 소식
- 44 • 회원YWCA 소식

2011.03

제47권 제2호 통권479호 2011년 3월 1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박경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2(02-3443-4877)
구독신청안내 구독찬조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된장 만들기 체험

지난 2월 17일 경남 산청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서 부산 YWCA생협은 된장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친환경 된장 만드는 법을 열중해서 듣고 직접 담가 보면서 봄 채비를 서둘렀다.



청주Y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회

청주YWCA는 지난 2월 10일 조합원 33명이 모인 가운데 아이쿱(coop)청주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회를 열고 오는 4월 9일 법인 설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로 결의하였으며 전국 회원 YWCA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사천Y다문화센터 한국공항공사와 업무협약

사천YWCA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월 17일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식을 갖고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다문화가정 환경 개선 지원 등 업무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회원증모운동 시상식

지난 2월 9일 광주YWCA는 회원증모운동 시상식을 통해 이사, 위원, 직원들의 노력으로 회원 목표 104%, 회비 목표 117%포인트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즐거운 방학교실

충주YWCA는 겨울방학 동안 맞벌이로 자녀의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방학교실을 열어 점핑클레이, 경제교육, 체험활동,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며 의미 있게 겨울방학을 보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캠프

지난 1월 18일~19일, 22일에 대전YWCA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겨울캠프를 다녀왔다. 국제결혼을 통해 보금자리를 튼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가정이 참가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지난 2월 12일 여수YWCA 늘푸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토요일체험활동으로 사랑+눔 장애인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하나님의 정의(正義) 앞에 나의 정의를 내려놓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YWCA 선배님들의 거룩한 꿈이 공상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력 있는 조직으로 역사 앞에 존재함은 그 꿈을 뒷받침한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YWCA의 90여 년 역사는 거룩한 꿈과 뜨거운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솔한 성찰, 자성과 함께 또 꿈을 꿈니다.

긴 역사 속에서도 젊고 생명력 있는 기독교여성운동체의 견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펼쳐가는 꿈입니다.

이 꿈이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꿈이 되기를 바라며 '아침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날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기도로 맑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효섭 목사)

매월 첫 날 첫 시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Y가족들로 부름 받은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조명 받고, 그 목적을 위한 결단과 헌신을 뜨겁게 다짐합니다.

기도는 썩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Y에서 살아 역사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 후배들과 Y에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큰 무기는 기도와 눈물입니다. 우리 사회와 북한을 포함한 우리 이웃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시대적 사명 앞에 선 우리 YWCA를 품고 흘리는 뜨거운 기도의 눈물은 아름다운 수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수증기를 강한 소나기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소나기로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죽어가던 피조물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하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슴이 떨립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Y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아침 기도 운동'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 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교자

YWCA는 기도와 운동이라는 두 날개가 공존해야 합니다. 두 날개의 공존 없이는 YWCA는 날 수 없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YWCA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비록 제가 당한 슬픔이 크으나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니
제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다.

정의가 무시당하고 꺾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으나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하여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고 소리지른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겿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자신의 정의를 죽이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정의'를 주장하셨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자신의 정의를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지만 우리의 약한 마음은 항상 내 정의를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반복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솟구쳐오르는 내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도 자신의 정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순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셨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없다. Y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없다. 하나님의 정의 없이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 내 정의를 나타내면 우리는 정죄하게 되고 독재자들의 우를 범하게 된다.

기도의 자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정의운동을 하기 때

문이다. 하나님의 정의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게 된다. 십자가의 평화가 유대인의 정죄를 이겨낸 하나님의 정의운동이며 평화운동이다. 겿세마네의 기도가 없었다면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가 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YWCA는 기도와 운동이라는 두 날개가 공존해야 한다. 두 날개의 공존 없이는 YWCA는 날 수 없다. 두 날개로 날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YWCA가 되기를 축원한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정의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 앞에 승복하게 하소서. 끊임 없는 기도로 우리의 정의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2011년에 정의운동을 하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정의가 솟아 괴롭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의가 죽게 하소서.

기도와 운동의 두 날개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게 하소서.

모든 회원YWCA가 머리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세상을 바꾸게 하옵소서." 

2월 YWCA 월례아침기도회 말씀 중 (이전진 중국교회 목사)

청년정의 운동, '자치'가 정의다

● 글 | 양선희 서울YWCA 강남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의란 좋은 삶을 고민하는 것

지난해 시작된 '정의' 열풍이 새해에도 식지 않고 있다. '왜' 정의인가. 정의가 무엇이길래 온 세상이 정의, 정의하는가.

YWCA 목적이기도 한 정의,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의 주역, 마이클 샌델 교수조차도 정의란 '이것이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강의와 책을 바탕으로 굳이 규정하자면 정의는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가치나 도덕의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남의 도덕과 종교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동료 시민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청하는 것, 그 신념을 숙고하고 몰입하며 존중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것이 곧 좋은 삶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정의 운동은 좋은 삶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수동적 인간 청소년?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낱말은 '수동성'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을 공부에만 몰입하는 기계 같은 존재,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청소년기를 보내는

반항적이고 우울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도 '밥'을 할 줄 모르는 청소년, 자동차와 학원 차량은 타 봤지만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 청소년이 낯설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심지어 가정교육도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 밥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관에서 만나는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이 반드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활동 시간과 분야를 정하고 활동확인서를 받는 모든 과정은 어머니의 몫이지 청소년의 몫이 아니다.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대학 합격이 판

가름 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청소년의 삶은 청소년 스스로가 아닌 부모에 의해, 어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가치와 이상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누구이며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좋은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힘을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는 꿈에 불과한 것일까.

청소년 민들레 운동의 부활을 꿈꾸며

YWCA의 영원한 스승 박에스터 선생님은 YWCA는 건물이나 숙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YWCA는 사람



을 키우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일으키는 곳이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행할 수 있는 '자치'를 꿈꾸고 실현하는 현장이 YWCA이며, 자치야말로 YWCA의 가치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자치는 YWCA 민들레 운동과 만난다.

YWCA 민들레 운동은 나눔과 섬김과 살림의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이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으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삶의 양식을 생명사랑과 영성, 관계,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양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이다.

YWCA 민들레 운동이 '스스로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자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곧 정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치란, 정의란, 나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다른 이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좋은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4년 YWCA에서 민들레 운동을 시작할 때 여성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들레 운동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YWCA 목적과 가치가 민들레 흩날처럼 퍼지고 퍼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라는 씨앗부터 가꿔야 한다.

자치의 현장 '지역'

지역은 이제 시대의 열쇳말이다. 민들레 운동의 현장이 지역이듯이 청년정의 운동의 현장, 청소년의 자치를 키우는 바탕 역시 지역이어야 한다.

●가치 교육을 강화하자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은 우리 사회에서 '왜'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라는 방법 중심의 교육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치 교육으로의 전



환, 나와 남과 세상과 이웃, 자연을 통찰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철학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 자치에 힘을 신자. 그 현장은 지역의 학교와 청소년단체, 교육기관 등이 될 것이다.

● 지역에 맞는 주제를 찾아 동아리에 심자

지금까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주로 댄스, 노래와 같은 취미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 동아리에 주제를 심어 놓자. 환경이나 인권, 평화, 봉사 등 지역에 맞는 '주제'를 선택, 소그룹을 조직하여 생활 나눔과 성찰, 실천을 통해 자치력을 키우자.


● 어른과도 함께하자

강남청소년수련관은 2010년 포스코, 푸르덴셜, 외환은행 등과 연계, 기업 직원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운영하였다. 포스코와 푸르덴셜은 청소년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면 생리대를 제작하여 우간다의 에이즈 고아 청소년을 후원했으며, 외환은행 직원들은 고등학생, 초등학교의 멘토가 되어주는 봉사활동으로 디지털 카메라 배우기, 앨범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을 통한 성인과의 연계, 중고등학생 서로의 연계를 확대한다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의 자치는 쑥쑥 자랄 것이다.

정의가 강처럼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청정(靑正)세상은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세상이다. 청정세상에서 청소년들은 겸손하게 배우고, 마음을 열고 나누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임을 깨닫는다. 청정세상에서 청소년들은 좋은 삶을 고민하고 다른 이의 좋은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나와는 다른 남의 도덕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청정세상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삶을 깨닫고 다름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가 곧 정의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정의가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다른 이에게서 또 다른 이에게로 마르지 않고 흘러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는다.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의 주체가 청소년이 될 때 세상은 더욱 맑고 깨끗한(靑淨) 세상이 되고, 그 청정(靑淨)세상에서 청정(靑正)세상은 민들레 흩날리며 퍼지고 퍼져 나눔과 섬김과 살림의 생명사랑 공동체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이다. 

내 이름은 39등이 아니라 김철수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키다리학교-

● 글 | 연합회 운동국 청년운동팀

**전교 1등만
꿈꿀 수 있는 사회**

중3인 철수는 인생이 고달프다.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만 하는데도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야근하는 어른들보다도 더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관리를 해야 한다. 아무리 엄마가 알아서 찾아준다고 해도 지하철역에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건 피곤한 철수 몫이다. 좀 쉬고 싶다고 투정을 하는 철수에게 부모님은 '형편 어려운 집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고 봉사활동도 제대로 못 하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 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신다. 꼭 참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하신다. 그러나 철수는 알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다고 이 고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춘누나는 대학교 4년, 아니 어학연수 1년을 포함해서 5년을 토익공

부, 취직공부에 매달리느라 명절에 얼굴보기도 힘들었는데 졸업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취직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누나를 걱정하는 친척 어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누나보다는 더 좋은 '명문대'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철수는 가끔 금금해진다. '대학까지 잘 졸업해서 취직한 후엔? 취직했다고 엄마가 혼자 알아서 다하라고 하면 난 어떡하지?'

그러던 철수에게 누군가가 물었다.
"철수야, 넌 뭘 잘하니?"
철수는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혼란스러워졌다. '난 뭘 잘하지? 컴퓨터게임? 아니, 이걸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우리반에만 해도 수두룩한데. 그럼, 공부? 그래봤자 반에서 겨우 30등권인 걸.' 철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1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화도 나고 풀이 죽어 말했다.
"잘하는 거 없는데요."
그 사람은 철수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철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철수는 또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사, 과학자, 대통령 같은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대충 얼버무렸던 것 같다. 그렇지만 만일 의대에 들어가지 못 한다면? 의대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의대에 못 들어가면 의사는 못 될 거고, 그리고 보니 난 아직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럼 뭐가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수재도 아닌 나는 졸업하고 나면 무얼 할까.

철수는 점점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쓸데없는 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귀찮게.’ 결국 철수는 버럭 성질을 내고 말았다.

“그딴 거 없어요!”

한 줄서기로만 내몰리는 아이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언제나 줄을 서고 있다.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성적순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서야 한다.

대학에 가면 ‘명문대학’부터 줄을 서고, 대학을 졸업하면 연봉이 얼마냐의 순으로 줄을 선다. 급기야 어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줄을 세우려 들기 시작한다. 사는 곳, 부모님 직업 등으로 줄을 세우면서 이때 줄이 평생간다는 웃지 못할 핑계를 댈다. 이제 교육부는 공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체험활동도 인터넷상에서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우리 가운데 아무도 ‘피아노 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공차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집에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진로도 등수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재능은 기술이 되었다. 가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보컬학원, 댄스학원으로, 만화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애니메이션학원으로 가서 사회가

원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고집스럽게 고생하며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신문과 방송에 나올 만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다.

정의는 슈퍼맨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YWCA는 올해 ‘정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서는 것만 가르쳤던 어른들은 이제 청소년들을 버릇

없고, 폭력적이고, 되바라진 사회의 걱정거리라며 혀를 끌끌 찬다. 1등으로 출선 아이들은 그들대로 어깨가 부서질 듯한 스트레스와 경쟁에서 이겼다는 자만심으로 남을 무시하고, 줄서기에서 뒤로 밀려난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만들어내어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자존감을 찾으려 발버둥 친다. 나는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도 않은 채 불한당쯤으로 내몰리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YWCA는 ‘정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내밀어야 할까.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줄서기에 내몰리며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혹은 학교나 학원 외의 활동은 봉사활동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쯤으로만 생각하며 스펙관리 잘하고 있는 ‘1등급’ 청소년들에게도 ‘정의’는 그저 슈퍼맨, 아니 파워레인저가 지켜주는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는 아닐는지.

그 이상한 사람은 다시 철수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럼 1등이 아니면 전부 다 쓸모없는 사람일까? 철수야, 너를 30등이 아니라 김철수라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 봐.”

철수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잘 하는 일은 뭘까?”

YWCA의 정의운동은 바로 이 이상하지 않지만 오늘날

이상하게 되어버린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사회의 정의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관심도 없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절실히 YWCA가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한 인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키워주는 일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재능 찾기가야말로 자신을 찾는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찾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들은 비로소 자아를 들여다보게 되고 1등과 40등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YWCA가 만들어갈 키다리학교의 목표이다. 고아소녀 주디의 글쓰기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편지쓰기를 조건으로 후원해줌으로써 주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즐겁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준 소설 속의 키다리아저씨처럼 키다리학교는 아이들이 자연과 문학, 예술, 놀이를 통해 즐겁게 자신을 알아가고 발전시키며 사회에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고자 한다.

키다리학교는 비전스쿨 프로그램이 지원해온 청소년의 자아발견과 인생설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견한 재능을 재능기부자와 함께 직접 경험해보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친구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재능을 나누는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 YWCA가 지난 89년의 역사 속에서 가난하고 천한 이들의 친구였던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쟁미망인, 공장근로자 등 힘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온 것처럼 리더를 부르짖으며 모든 아이들을 1등이 되라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1등 경쟁에 지친 2등부터 40등까지의 청소년들이


각각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의 한가운데 서있는 YWCA가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 아닐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그리고 철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철수야, 카이스트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께서 시골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실을 열고 싶어서 자신의 지식을 기부할 지원자를 찾는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대. 열 시간이 채 안 되어 과학자, 의사, 교수님들 100여 명이 자신의 지식을 기부하겠다고 응답이 왔대. 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정리 같은 일도 필요할 테니 돕겠다고 나선 사람도 100여 명, 책이나 돈을 기부하고 싶다는 사람도 100여 명이 모였대. 굉장하지?”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 300여 명 중에 과학자나 교수님 같이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기부만 소중한 자기의 다른 능력이나 책을 기부하겠다고 한 나머지 200명의 기부는 쓸모없는 것일까?”

“아니요.”

키다리학교를 통해 우리사회의 수많은 철수들에게 멋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방식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길을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 소중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자신은 40명 중 39등이 아니라 소중한 김철수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은 파워레인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각각의 존재들이 땀과 눈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위기에 처한 청소년 교육 패러다임 어떻게 할 것인가

● 글 | 전효관 서울시 하자센터 센터장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청소년

청소년은 보통 아이와 어른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성장 진통,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경과적인 성장 과정 상의 문제로 주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맥락에는 소비사회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자유화, 경제적으로 '삼저호황(三低好況: 저유가·원화 약세·저금리)', 국가적으로는 88 서울올림픽 대회 등을 경과하면서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접어든다. 신세대 논의 이후 각종 세대론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나 성장한 세대 특징과 관련이 있다. 자기 표현에 익숙한 세대, 자기 권리에 민감한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감수성을 반영하

는 것은 쉽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경쟁질서 속에서 자기 욕구와 현실의 격렬한 충돌을 경험했다. 일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극도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밤이 되면 인터넷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몰두했다. 학교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이 늘고, 학습으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이 늘어났다. 아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가속화하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나갈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이에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부적응과 외톨이 현상

일본에서는 외톨이들이 많다고 한다. 몇 달 전 일본 내각부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조사가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 현상은 일본에서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하



여 1980년대에 들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조사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로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무려 70만 명에 달하며, 잠재군은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화장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연사회(無縁社會)'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는 어떨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청년층에서 유사한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학교에서 또래들과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거나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는 수많은 청소년이 있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부적응 현상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극히 일부의 잘 따라오는 아이들에게만 적합하게 운영된다. 학교에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대학생의 자퇴 선언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하나의 트랙을 향해 달리는 경주마로 훈련된다. 아이들이 겪는 위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육은 이미 파산상태다. '하면 된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산업사회 어른들의 로망이 빚어낸 교실과 학교의 틀에서 아이들은 잠을 자면서 투명인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거나 시간을 죽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교육과 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의 위기

교육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파산상태이다. '하면 된다'는 식의 산업화 시기의 교육 패러다임만 위기인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는 식의 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도 위기이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된다는 자유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차이와 결핍만을 확인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서로 의지를 모을 수 없는 불행한 시기를 대면하게 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악순환을 생산해내고 있다.

산업화시기를 거쳐 문화의 시기에 자율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이라든지, 문화 생산자로서 성장시키기와 같은 청소년 담론들이 많았다. '자율적 문화공간 만들기'는 또 한 시대의 이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기표현과 자기개발을



강조하는 문화는 아이들에게 불안감과 결핍감만을 확산시키면서 자기만의 방으로 숨어드는, 그래서 서로 의지를 모을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사고해야 할 때이다. 내 욕망에 타인의 욕망을 복종시키려는 태도로는 서로 차이와 결핍만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살리지 못하는 한 개인도, 학교도, 사회도 같이 죽어갈 것이다. 서로의 관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계속 곁들 것이다.

삶의 대안들을 체험하는 관계적 교육

지금은 기존의 교육 관념에 대해 잠시 멈추어 서서 숙고해보고 성찰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

서로 나누고 돌보는 관계만이 같이 사는 방법이라는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구체적 관계가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는 기획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경쟁과 자기개발이라는 아주 좁은 반경 내의 경험만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의존하고 있다는 경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경험의 반경을 넓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익 인턴십 등을 통해 의존과 협업의 관계를 알아가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들 중에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들이 많은 것이다. 정서적 위기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흠을 만져보거나 영성과 관련된 교육 등이 유효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의존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자연의 관계, 정신과 물질의 관계 등을 자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존재 체험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감은 사실은 현실적인 불안감이기도 하다.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에게 삶의 대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체험이 없이는 불안감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협력해서 소비하는 삶의 방식이나 적은 돈으로 매력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삶의 사례들은 적지 않다.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현장들, 또는 지역과 제3세계에서 타인을 위한 삶을 꾸려가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알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제 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생태계 파괴, 폭력과 성차별, 퇴폐 향락문화 등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가 파괴되어 가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에 YWCA는 TV 프로그램 중 특별히 여성, 청년, 환경 및 평화부문에서 생명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을 드립니다. 올바른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소외되고 낮은 곳을 발로 뛰며 삶의 구석구석을 조명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려는 방송제작자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 추천 대상 프로그램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서 그 주제가 여성, 청년, 환경, 평화에 관련된 TV 프로그램

| 시상 부문과 심사 기준

- 대상 : 생명사랑공동체정신을 잘 표현한 프로그램 1편
- 여성(정의) 부문 : 결혼이민여성, 소외여성, 육아,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과 노동권 존중, 여성의 일·가정 행복 등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여성지위 향상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드라마 및 예능 1편, 시사 및 교양 1편씩 총 2편
- 청년(정의) 부문 : 우리 사회 청(소)년이 처한 교육 환경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대안 재능을 발굴,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나누는데 기여하거나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상을 제시한 프로그램 1편
- 환경(정의) 부문 : 건강한 먹을거리, 땅과 물을 살리는 환경운동, 생명문제, 환경문제 고발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환경의식

을 고취시키고, 환경 개선 혹은 환경 살리기에 기여한 프로그램 1편

• 평화 부문 : 지역사회활동, 계층·지역·세대 갈등 해결 및 통합에 이바지하고, 나눔, 섬김, 살림의 생명사랑공동체 정신을 잘 함축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 1편

| 추천 마감

2011년 3월 10일(목)

| 추천 방법

- 추천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우편, 팩스, E-메일 중 택하여 발송
- 주소 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 팩스 (02) 774-9724
- E-메일 purpledawn@ywca.or.kr / ywcapr@hanmail.net
- 구두추천 (02)774-0230 / 010-2760-3894 (담당 : 박경희)

※추천서와 역대 수상작에 대한 정보는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www.ywca.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부 지역위원장과 함께하는 YWCA 지역운동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5부 지역위원장이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북부와 서부지역 위원장이 연임되고 나머지 세 지역은 새 얼굴로 바뀌어 5부지역위원회를 대표해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지역위원회 위원장
이명조(수원YWCA 회장)

2011년, 한국YWCA 전국 제안의 중점운동인 여성경제정의, 청년정의, 환경정의 운동, 통일을 대비, 소망하며 북한 YWCA 재건운동에 12개 경기지역 회원YWCA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일할 것입니다. EM운동, 다양한 탄소절감운동, 결혼이민가정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동참하여 그들을 섬기는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돌봄 여성의 노동권 인정과 성 평등 조례의 참여를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회원YWCA 실상을 같이 고민하여 고르게 성장하는 경기지역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WCA가 하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다양한 운동이 자칫 기독교 신앙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하여, 피곤한 만물이 하나님의 사람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시대적 소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행동하고, 창조질서의 보전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정의를 이루어 드리는 운동이 되도록 회원YWCA 간에 긴밀한 교류와 유대를 이루는 경기지역위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명숙(부산YWCA 회장)

YWCA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은 먼저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거룩한 눈물과 옆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임회장인 제가 동부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의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며 각 지역 YWCA와 연대하여 함께 성장해 가는 동부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시편 말씀처럼 정신적 연합, 마음의 연합, 영적 연합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땅과 생명을 살리는 생활협동조합운동 확산과 EM 사용을 통한 환경운동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빨리 가지 말고 함께 멀리 가면 좋지 않을까요?



북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연배(서울YWCA 회장)

2010년 북부지역위원회는 지리적 거리에 불구하고 회원대회와 리더십 훈련, 협의회를 통해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강릉YWCA가 정회원으로 승격되고 인천YWCA가 새 회관을 갖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는 다문화운동에서 지역사회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활동 요구가 커짐에 따라 YWCA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국YWCA가 올해 들어 영성과 운동성이라는 양 날개의 균형 속에 YWCA 목적에 충실한 운동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로 회원 개개인의 삶 속에 실천하는 운동이 지역사회운동이 되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바꾸는 운동이 되도록 실천에 힘쓰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옥식(광주YWCA 회장)

작년에 이어 서부지역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장 13절)는 말씀을 붙잡고 서부지역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온 결속력을 바탕으로 11개의 회원Y에 따뜻한 애정을 갖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연합회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면서 연합회가 YWCA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체험하며 우리사회에 미치는 한국YWCA의 영향력이 대대함을 새롭게 인식하였습니다.

11개 회원YWCA가 속해있는 다양한 지역 문화와 여건

에 맞추어, 보다 진취적인 YWCA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연구, 토론하며 YWCA가 기독교사회운동체로서, 사회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돌아보는 연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동부지역인 포항에서 개최되었던 동·서부교류 합동연수회를 금년에는 서부지역에서 초청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돈독한 정을 나누는 기회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도 즐겁고 기다려지는 지역위원회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중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차영희(대전YWCA 회장)

신년하례회에서 만난 '정의운동'은 제가 늘 소원하며 기도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을 YWCA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강교자 회장을 비롯한 YWCA 지도자들을 껴안고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영성운동, 여성돌봄운동, 생명운동, 청년운동,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YWCA 운동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퇴색해버린 교회와 세상을 향해 정의운동을 펼치라고 항상 앞서가는 YWCA를 통해 분부하심이라 생각하며 지역회원YWCA와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중부지역은 '땅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사회운동'을 중점운동으로 하고 도농교류와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판매,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생명살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제2의 환경 재앙 문제를 주시하여 녹색실천으로 EM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보존되도록 연합회와 지역YWCA가 함께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YWCA 새 일꾼을 소개합니다

정기총회가 마무리되면서 모두 20개 지역 회원YWCA에서 새로운 회장이 뽑혔습니다.



강릉YWCA | **전배자** (만 55세)

- 중앙감리교회 권사
- 관동대 기독교학과 졸업
- 현 강릉시 교육청 상담자원봉사활동
- 강릉시 여성문화센터 예절교육 다도 강사
- 강릉Y 이사 역임



논산YWCA | **고인숙** (만 48세)

- 그리스도교회 권사
- 서울신학대학 3년 수료
-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모니터
- 논산Y 이사, 회장 역임



마산YWCA | **연순자** (만 59세)

- 새누리교회 집사
- 색동어머니회 중앙회 창립
- 경남대 유아교육과, 창신대 평생교육원 강의
- (사)한국동화구연전문가협회 회장 역임



부산YWCA | **김명숙** (만 64세)

- 수정성결교회 권사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졸업
- 양지재활원 교사, 영양사 역임
- 강서복지관 위원장 역임
- 부산Y 회원부위원장, 부회장 역임



사천YWCA | **김영자** (만 50세)

- 영복교회 권사
- 안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여성농업인 회장 역임
- 사천Y 이사, 부회장 역임



군산YWCA | **이현옥** (만 51세)

- 지경교회 권사
-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현 은파장례문화원 대표이사
- 군산Y 이사, 부회장 역임



동해YWCA | **장지영** (만 49세)

- 북평장로교회 권사
-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현 베스티벨리 대표
- 동해Y 서기, 부회장 역임



목포YWCA | **김애자** (만 64세)

- 목포남부교회 권사
- 목포여자고등학교 졸업
- 현 (주)목포골프클럽 대표이사
- 목포Y 이사, 부회장 역임



부천YWCA | **심명자** (만 60세)

- 새부천감리교회 전도사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
- 부천Y 이사 역임



성남YWCA | **김미란** (만 49세)

- 새성남교회 사모
- 안동과학대학 졸업
- 성남Y 위원, 이사 역임



안동YWCA | **백종례** (만 59세)

- 안동서부교회 권사
- 성신여자사범대학 미술학과 졸업
- 길원여고, 성신사대부속중학교 미술교사 역임
- 안동Y 이사 역임



양산YWCA | **김재욱** (만 52세)

- 갈릴리교회 집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현 덕계성심병원, 신세계병원 병원장
- 부산사회복지사 금정지부 회장



제주YWCA | **신경인** (만 58세)

- 신제주성당
- 이화여대 사범대학 시청각교육학과 졸업
- 현 제주Y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단 단장
- 여성의 피난처 위원장
- 제주Y 이사, 부회장 역임



천안YWCA | **김태년** (만 59세)

- 갈릴리교회 권사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 충남사회복지사협회 감사 역임
- 현 천안시 보육시설연합회 감사
- 사회복지법인 삼일육아원 원장
- 천안Y 임원 역임



포항YWCA | **김항자** (만 61세)

- 늘사랑교회 권사
- 포항수산대학 경영학과 졸업
- 포항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역임
- 전국선교정책연구소 이사 역임
- 포항Y 이사 역임



안양YWCA | **임영숙** (만 54세)

- 서울교회 권사
-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 강원 홀트후원회 회장 역임
- 안양Y 이사 역임



인천YWCA | **장정희** (만 56세)

- 청광감리교회 권사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한국사립유치원 인천지회 동부회장 역임
- 현 청학유치원 원장 / 인천Y 이사 역임



제천YWCA | **김숙자** (만 51세)

- 영광감리교회 권사
- 충주신학원 3년 과정 수료
- 제천Y 이사, 부회장 역임



파주YWCA | **박은희** (만 56세)

- 예수로교회 권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영동세브란스병원 수간호사 역임
- 현 용산·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임강사
- 파주Y 이사 역임



하남YWCA | **배윤례** (만 57세)

- 동부제일교회 집사
- 기드온신학교 신학과 졸업
- 복음신문사 편집부 차장 역임
- 하남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 활동
- 하남시의원 역임 / 하남Y 이사 역임

섬김과 낮춤을 가진
멋진 리더가 될 거예요



최성령(거제YWCA)
Y-틴 전국협의회 회장

멋지다, 우리 Y-틴. 안녕하세요. 2011년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순수 열여덟 살 소녀 최성령입니다. 일단 이런 자리를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믿고 밀어준 진주Y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Y-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전국회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마음먹은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고 무대에서 멋지게 연설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란 섬김과 낮춤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중앙임원을 맡기 전까지는, 오로지 저의 주장만 내세우고, 제 생각과 다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임원을 맡으면서 그리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섬김과 낮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회장을 하면서 항상 섬김과 낮춤을 갖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2011년 전국협의회는 참으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본 일, 전국회장 후보에 올라 지지발언을 얻고 연설문을 작성하고, 연설을 한 일 등 Y-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올해에는 전국 Y-틴 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Y-틴이 적극적으로 YWCA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틴 친구들의 꿈 길라잡이,
오뚝이가 되고 싶어요



조신정(서울YWCA)
Y-틴 전국협의회 총무

안녕하세요. 이번 2011년도 전국 Y-틴 총무로 선출된 이화여대병설 미디어고등학교 2학년 조신정입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회장인 성령이처럼 큰 포부를 갖고 선거에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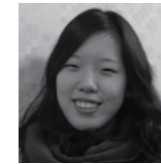
단지 Y-틴 생활하면서 여러 지역의 Y-틴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꿈을 갖고 있구나!”, “아! 이 친구는 이런 고민이 있구나!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임원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점이 있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쓰러질 때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Y-틴 회원모두가 하나 되어 조화롭게 Y-틴 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역시 노력 없이는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매사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with y-teen!♥

소통과 나눔, 함께 사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다은 (PD, 서울대 심리학과 4년)



개인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알리는 데에는 방송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인이 되기를 꿈꾸어 왔다. 방송을 통해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선 YWCA가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사회의 소외된 여성들, 특히 돌봄 노동자나 결혼이민여성들을 돕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일치하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YWBS에 지원하게 되었다. PD로서 요일별 방송컨셉을 정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선곡, 섭외 소개할 책 선정 등 작가와 아나운서들이 하게 될 원고작업의 기초를 만들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PD로서 실무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배우며 일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Y와 W, 즉 여성과 내 포래의 젊음이 그리고 젊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강태준 (아나운서, 고려대 경영학과 4년)



기자 지망생으로 학보사 활동을 해왔지만, 앵커의 역할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다. 작년 대한장애인농구협회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공익단체의 활동에 대해 많이 배웠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

듯함과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YWCA의 방송활동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YWCA의 운동 중에서는 다문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나운싱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방송에서 다루게 될 사연들을 통해 공익단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 배우고 싶다. 라디오에서 '굿모닝팝스'를 오랫동안 매일 들어왔다. 처음에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듣기 시작했지만, 오래 듣다 보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듣지 않으면 궁금하고 허전해지는 꼭 필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YWBS의 방송을 청취자들이 이처럼 찾아듣는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제작자로서 청취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청취자가 방송제작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취자가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이름을 불러주고,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점심시간 방송이므로 활기차고 통통 튀는 재미난 방송을 만들 계획이다.

김지선 (아나운서, 극동대 언론홍보학과 3)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YWBS 운영진 모집공고를 보고 아나운서 지망생인 나에게 추천을 해주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인 방송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가장 크다. 아직은 YWCA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내 자신이 Y를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고

싶다. 치열하고 급하게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따뜻한 여유를 주는 방송으로 YWBS를 만드는 게 꿈이다.

박유라 (아나운서, 중앙대 영문과 4년)



할머니께서 30년 넘게 YWCA에서 실무자를 거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부모님께서도 청소년클럽 지도자로 오래 일해오셨기 때문에 YWCA는 내게 무척 친근한 이름이다. YWCA는 결혼이민여성 지원활동이나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등 기독교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YWCA의 활동을 많이 알려져 더 많은 참여와 후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방송을 만들어갈 나의 포부다.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라디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시험방송을 준비하며 청취자와 소통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방송을 통해 홈페이지로는 이끌어내기 어려운 회원 가족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싶다. 또 여성지도자상 수상자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백인화 (아나운서, 서울대 약학과 4년)



학교선배이자 이라크전 취재로 유명한 MBC 이진숙 기자의 특강에서 여기자로서 체험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 듣고 여성단체인 YWCA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평소 전공을 살려 과학분야 방송기자의 꿈을 가지고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워 온 터였고, 우연히 방문한 YWCA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방송국 운영진 모집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YWBS 일을 하며 우선 방송에 대한 경험을 마음껏 해보고 싶고, 쓰는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기르고 싶다. 개인적으로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은데 방송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양영경 (아나운서, 건국대 부동산학과 3년)




YWCA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여 서울YWCA가 지원하는 서울학생동아리 한마당 중 한 코너의 MC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 그래서 YWCA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꿈을 이루는 장'이다. YWBS의 공고를 발견했을 때 'YWCA에서 나에게 꿈을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수많은 매체들과 인터넷방송 채널이 존재하는 가운데 YWCA의 방송국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가십이나 가벼운 내용보다는 진지한 사회활동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고민이 담겨 있는 가운데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슈들을 발견하고 싶다.

이예은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4년)



PD로 들어온 이다은이 친동생이다. 동생이 YWBS에 지원하며 권해주어서 같이 지원하게 되었고 함께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아마도 둘이 많이 닮지 않아서 면접 때 친자매인지 모르고 뽑아주신 것 같다. 예전에 마포 FM라디오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다. 마포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소식과 음악을 방송하는 비영리독립단체인데 혼자서 프로그램 제작, 기술, 진행까지 다 했다. 고되었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그때부터 비영리단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고 YWCA 방송국에까지 오게 되었다.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통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흥미가 있다. 또 공동진행의 매력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즐겁다. YWBS를 통해 각지의 회원Y와 다른 NGO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 알고 싶고 단순히 알리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단체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 또 대학생의 패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와 나눔의 중요함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다. 

| 행복한 불편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 친환경농산물과 무상급식

● 글 | 연합회 운동국 생명운동팀

전국 회원YWCA와 연합회에서 진행한 소비자운동을 이슈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대량으로 공급되는 급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면 국내 이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일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쪽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1.5~2배 정도 가격이 높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튼튼히 자리잡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YWCA에서는 지난해 6월 16일, 여수시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의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제안회의를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여수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키워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제안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상급식뿐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활발하게 학교급식재료로 소비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기관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수YMCA생협의 박수진 간사는 발제에서 '여수시 친

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으로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에서 오는 식재료의 안전성, 신선도, 가격을 꼽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최소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납품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용 측면에서도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직거래방식을 적용하여 지역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재정비하면 지역먹거리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협의체로 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적어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구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을 떠나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농촌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단순화하며 지역적인 특색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의 일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인기영합주의를 넘어 보편적 복지 그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뜻한 사랑의 자기장이 흐르는 YWCA

글 | 오영란 한국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부장



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54개 회원YWCA에서 YWCA와 각별하고 따뜻한 교류와 연대를 하고 있는 도움의 손길 그리고 현장, 그 감동의 모습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한국YWCA연합회를 처음 만난 건, 인사 이동을 통해 한국씨티은행 사회공헌팀으로 오고 난 이후인 작년 6월 10일 씽크머니 자문회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전에도 봉사활동이나 후원활동에 관심을 갖고 종종 참여를 해온 터라 YWC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연합회가 저희 은행에서 가까운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이날 방문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이자 한국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빨간 벽돌로 지어진 고즈넉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와 달리 소박한 건물과 사무실이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한국씨티은행은 YWCA와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와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돕는 석세스 프로그램(Success Program) 그리고 한국 여성지도자상 등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YWCA와 진행하면서 느낀 건 YWCA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이 좋다는 겁니다. 함께 회의를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똑 부러지는 Y분들의 표현력은 듣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과 설득력이 느껴지게 합니다. 절대 말발만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말의 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저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묻어나 프로그램 실행에 있

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YWCA에서는 친절함과 같은 푸근함이 느껴집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Y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방문을 했습니다. 회의시간에 정갈하게 준비해주시는 다과들과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생각나게 하는 푸짐하고 맛 좋은 식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횃수를 떠나 다른 곳보다 YWCA를 방문했을 때는 남의 집에 온 것 같지 않은 푸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아마 Y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YWCA와 한국씨티은행의 만남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 이루어진 물(H₂O)과 같다'고 표현하셨던 강교자 회장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신비이고, 또 모든 이에게 필요한 소중한 자원인 물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 사실 전혀 다른 목적과 성격으로 이루어진 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함께 어우러져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물과 같은 힘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둘의 아름다운 만남은 성실하고 의미 있는 긴 인연으로 9년째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며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도 겪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해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G20 의장국과 같이 국가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KTX,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은 놀라운 일상생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10년간 변화된 것은 강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사고

와 의식의 변화까지 폭도 다양하였습니다. 그런 10년의 세월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온 YWCA와 한국씨티은행의 아름다운 인연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와 실천이 밑받침 되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3년부터 제정되어 시상하고 있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 사회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여성지도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우리사회 여성 지도력을 세우고, 여성의 권익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여성계 인사를 배출하고, 한국사회의 여성지위 향상을 몸소 실천해온 한국여성 권익신장의 모태이며, 살아있는 역사인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고 있기에 이상의 권위와 신뢰성이 더 공고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역시, 여성직원의 비율이 49% 이상이고, 여성임원 비율도 12%에 육박하는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자, 여성 경쟁력 향상에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이상의 권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엄정한 심사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검증 거쳐서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던 이지선 씨가 "30년 후에는 꼭 대상을 받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던 것처럼, 수상자가 느끼는 보람과 명예 역시 드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9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수상자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200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씽크머니 청소년 금융교실'은 '대한민국 청소년 금융교육'의 '이정표'이자 '모범사례'라고 자부합니다. 씨티그룹 내의 다른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지난해 씽크머니 우수강사로 선정된 YWCA 간사님들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Citi-FT Financial Education Summit 2010'에 참여하면서 젊고 열정적인 Y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는 저 역시 Y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이 YWCA의 또 하나의 강점인 '포용력' 아닐까 합니다.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Citi-FT Financial Education Summit 2010'

올해부터는 '키다리(키우자 다문화사회 리더들)'와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사회)'를 주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프로그램인 'Grow Together'를 함께 진행하고자 구상중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사명감으로 야심차게 진행할 프로그램이기에, 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함께한 또 하나의 멋진 사회공헌활동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길의 동반자로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한국YWCA연합회의 훌륭한 사회공헌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함께 성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YWCA는 방문한 모든 이에게 마치 절친한 친구로부터 진심 어린 초대를 받고 융숭한 환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배려, 따뜻한 사랑이 어우러진 YWCA의 명성이 입소문을 타고 자연스레 퍼져나가서, 멀리 있는 사람도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따뜻한 사랑의 자기장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분위기에서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존중의 문화는 YWCA의 또 다른 강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피력하는 Y회원들의 토론문화에 늘 감탄합니다.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한편 반대의견을 정중하게 제시하며 설득하는 Y분들의 모습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YWCA의 운수대통, 만사형통의 기운이 자연스레 계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딸의 진학은 새로운 부모학교의 시작이다



여진경
부산YWCA 홍보출판위원회 간사

‘내가 이제 학부모구나’ 하는 첫 설렘은 큰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이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은 나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그럼 나는 엄마?’ 그때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엄마로서 딸과 보낸 시간들 속에 부모됨을 배웠기에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모됨이어서 그랬는지 더 설레었던 것 같다. 입학식 날 딸이와 함께 초등학교에 간 나는 긴장도 되고 여러 걱정이 앞섰다. 초등학교에 과연 잘 적응할까? 엄마들 치맛바람은 심할까?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까? 선생님은 촌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줄까? 등등.

그러나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딸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다. 6년이란 초등학교 시간을 건강하게 보낸 딸이 중학생이 된다. 이제는 내가 흥분하기보다 딸이 더 흥분한다. 중학생이 된다는 뿌듯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학생 이미지를 덕지덕지 붙이려 한다.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고 감정의 변화도 함께 있다 보니 중학생이 된다는 것이 딸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 아이가 자란 만큼 내 나이 든 것이 놀랍기도 하다. ‘우리 엄마도 날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나하고 똑같겠

지’ 하는 생각이 들자,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잠시 들었다.

교복을 입은 딸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중학생이구나’ 싶었다. 멋모르던 초등학교에서 자기 것 챙기고 차근차근 중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딸을 나는 그저 지켜만 보게 된다. 내 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딸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랄까 딸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나도 함께 진학을 하는 것 같다. 새로운 부모학교에, 이제는 한 걸음 더 친구로 다가야 하는 부모, 딸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고유영역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 부모, 지금까지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이 믿어야 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지. 또 다른 부모됨에 대한 고민과 함께 딸에 대한 또 다른 걱정도 생긴다. 중학생들의 거침없는 힘의 논리가 걱정이 되고, 사교육 없이 중학교 과정을 잘 따라가야 할 텐데 같은.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내가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하시는 것만큼 딸을 믿고 사랑하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생의 큰 그림을 퍼즐 조각 맞추듯 작은 조각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도록’, 이런 부모의 마음을 딸은 알까? 알겠지, 몰라도 어쩔 수 없고, 나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는 여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딸도 그 여정을 가겠지. ♡



2011. 2. 장차현식

‘두분 토론’, 희화화가 주는 희한한 재미

● 글 | 김지숙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작가



KBS-2TV ‘개그 콘서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두분 토론’은 남녀차별이라는 소재를 극대화한 프로그램이다. ‘남자는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남하당 대표 박영진은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어디서 여자들이 건방지게~”라는 말을 후렴구처럼 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노골적일 정도로 남녀차별적이다. “여자가 어디서 외식을 해? 그것도 모자라서 뭐? 스파게티?” 이런 식이다. 반대편, ‘여성이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여당당 대표 김영희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라는 멘트로 시작한다. 김영희 대표는 남자들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맘껏 비웃은 뒤, “대단한 ○○○ 나셨다 그죠?”하며 일격을 날린다.

누구를 희화화하는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노골적인 발언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린다는 것이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는 구호에 동의한 것일까?

사실 ‘차별’은 개그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이다. 못생긴 여

자에 대한 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차별, 능력 없는 남자에 대한 차별 등이다. 그러나 이 차별이 개그가 되려면 희화화와 풍자가 적절하게, 그러나 불편하지 않게 섞여야 한다. 개그의 결이 조금만 바뀌어도 개그는 누군가에게는 불쾌함만 남길 수도 있다.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주노동자 불량카를 연기하며 ‘사장님 나빠요~’라는 멘트로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겉으로 보면 어눌한 말투와 검게 칠한 얼굴을 보며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대사를 듣다 보면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나쁜 사장님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개그는 풍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될 수도 있다. 반면 역시 개그 콘서트에서 틱 장애인들을 개그의 소재로 삼았다가 못매를 맞은 적도 있다. 입을 씹룩거리거나 눈을 찡긍거리는 틱 장애인의 특징을 과장해서 흉내낸 것이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신체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틱 장애인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 결국 이 일은 개그 콘서트 측의 사과로 일단락되었다. 이처럼 희화화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개그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



〈출처: KBS 개그콘서트 ‘두분토론’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불편하기에는 너무 웃기다

‘두분 토론’을 살펴보자. 얼핏 보면 남하당은 여성을 향해 여과 없이 조롱을 내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개그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아무도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하당 대표가 연기하는 남성은 구시대의 인습을 보여준다. 지금 그건 여성뿐 아니라 많은 남성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작년에 성향리에 끝난 ‘남성인권보장위원회(남보원)’와의 차이다. 남보원이 그동안 말하지 못한 남자들의 진심을 속 시원하게 외쳐서 인기를 끌었다면, 남하당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으로 결국 스스로를 희화화하고 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여자들에게도 두분 토론이 재밌기는 마찬가지이다. 남보원이 재미있는 줄은 알겠지만 어딘지 영 불편했다는 친구가 있다. 여자가 알기에는 불편한, 심지어 동의하고 싶지 않은 남자의 진심이 숨겨져 있어서이다. 하지만 이



들에게도 두분 토론은 불편하지 않다. 남하당 대표의 발언은 거부장적인 권위에 대한 풍자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여당당 대표가 이런 남성들을 비꼬며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다. 여당당 대표 또한 마지막에는 사회자가 자신에게 반했다고 우기는, 자기 착각에 휩싸인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며 자신을 희화화한다. 두분 토론은 남성과 여성 대표 모두가 서로를 비난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이 두분 토론이 가진 희한한 희화화이다.

한 가지 더. 남하당과 여당당 대표들의 맥락 없이 이어지는 토론은 흡사 백분토론의 토론장을 연상시킨다. 말은 극단적이고, 서로에 대한 반대만 존재한다. 이것 역시 우리가 평소 보아온 질 낮은 우리의 토론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제목도 백분토론과 비슷한 두분 토론이다. 두분 토론의 매력은 이처럼 극단적인 대사에도 불구하고 희화화의 재미를 다양하게 잘 살렸다는 데 있다. 희화화의 물결을 제대로 탔기에 극단적인 대사는 오히려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질병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축산

● 글 | 권영근 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온당한 관계성(Fair Relationship/일체감)의 단절

현대축산기술은 모든 유기적 관계(동양식으로는 '순환관계')를 차단하고 파괴한다. 동시에 생물의 생리적 원리·기능과 그 행동원리 및 건강을 무시하고 공업적 효율성만을 추구한다. 가축의 먹거리인 사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사육되면, 가축은 야생 풀을 먹고, 땅에서 수확된 미끼이나 밀기울도 필요한 만큼 먹는다. 그래서 가축이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것을 섭취하면, 그 성분은 축산물 속에 함유되어서 인간의 건강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배합사료에는 야생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인간이 현대축산에 의한 '공산품'을 먹느냐 아니면, 가축들이 스스로 자연 생태·환경 속에서 습득하여 종합하고 융화·조화시킨 '자연 보양제'를 먹느냐의 문제이다.

가축은 이제 더 이상 '가축' 즉,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기 위한 제품·상품' 달리 말해, 끊임없는 물질변환(Flow)이다. 축·산업(Industry)'은 즉, 축·공업

(Industry)'이다. 따라서 '가축=집짐승'은, 투입사료라는 원료를 고기·우유·계란 등의 제품이나 상품으로 효율성 높게 변환시키기 위한 기계,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차면 버리는 기계'로 변환되면서 '가축=집짐승'은 '산업[공업]동물=기계'로 전환되었다.

순환형 농업, 순환형 사회 형성에 역행하는 현대축산

사료곡물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대축산은 분뇨처리 문제 하나에도 높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농후사료의 다량 투입에 의한 가축개체 능력의 향상과 다량수확으로 국민에게 윤택한 축산물을 공급하지만, 귀중한 자연환경을 오염·파괴하고 있으며, 생산자도 높은 경비와 부채의 증대로 수익성 악화와 과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착유량 증대를 추구하여 온 낙농도, 축사사육과 농후사료 다량투입의 결과, 착유 소의 착유 연수의 단축이 진행되고, 젖소의 감가상각 비용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양돈·양계 부문도


낙농이나 육우 생산 이상으로 대규모화가 진행되어, 축사는 '동물공장(Animal Factory)'으로 되었고 여기에 수용된 가축은 '동물기계(Animal Machine)'가 되었다. 수입사료라는 '원료'를 투입하면, 컨베이어벨트에서 육류나 계란이라는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공장형 축산에서는 일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사 전체로 확산되고 생산자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가축의 생리나 행동원리를 무시하고 가축관리를 경제적 효율성에 종속시킨 결과,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간의 식료와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현대축산, 공장형 축산은 소자본을 가진 농민의 참가는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민적 축산과 생태·환경보전

자연순환형 축산의 기술은 농민의 영농과 생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자연, 지역자원과 관행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하여 보급되어 온 것이다. 또

한 본래적으로 지역자원의 유효한 이용, 낮은 비용, 생력화, 주변환경의 보전 등의 장점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그 기술은 지역의 자연에 강하게 규정된 기술, 소위 '지연기술(地緣技術)'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의 축산을 진흥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보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순환형 축산이 갖는 환경보전 기능에 대해 EU처럼 소득보전 직접지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이 당연히 행해져야 한다.

나아가 자연순환형 축산은 대체로 소규모 농가에게 적합한 농업이기 때문에 산출물의 소량 생산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유통기구는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순환형 축산의 생산물은 제품 차별화 또는 제품 구별화를 토대로 한 '지산지소(地產地消)' 또는 먹거리 유통거리 줄이기(Food Miles) 또는 지역 내 순환 개념을 도입한 유통체계의 구축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YWCA 회원우대 20년역사 "흠침대" 세일



발명기 李京龍 대표
특어류 100여개

수맥차단 특허
전자파차단 특허

미국 FDA 등록
☎1588 - 5335



뉴-경복궁 싱글 (오크원목)



뉴-백두산 더블 (오크원목)



400 ▶ 260만원

거실용소파 국산 100% 발명특허 소가죽

수맥이 흐르면
꿈을 많이 꾸고
허리가 아프고
불면에 시달리고
감기가 잦으며
늘 피곤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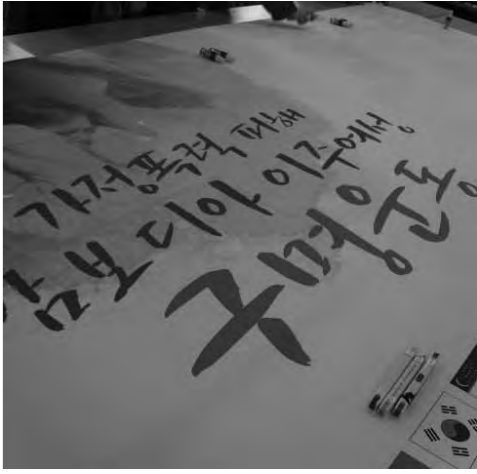
- 명동본점 : YWCA 본관5층 (02)777 - 4888
- 잠실공장 : 잠실역 2번출구 (02)419 - 0888

연세대 최고 경제인 賞 · 대한민국 산업훈장 수상
www.smbed.co.kr

세계 속의 한국YWCA

YWCA,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다

● 글 | 연합회 세계대회 준비팀



여성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

(Women Creating a Safe World)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최소 세 여성 중 한 여성은 맞은 적이 있고, 성적 강요를 당하거나 혹은 평생토록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유엔여성기구(UNWOMEN)로 명칭을 변경한 UNIFEM(유엔여성기금)은 2008년에 보고한 적이 있다. 폭력은 어떤 형태, 어떤 정도 이든 인간에게 치유하기 힘든 흔적을 남긴다. 특히 친밀한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 가정 등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당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더욱 큰 아픔을 남긴다. 세계YWCA는 2011년도 세계대회 주제를 '여성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으로 정해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과 정책화에 대한 논의와 워크숍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70여 개국의 국가Y에서는 폭력예방, 폭력피해 여성 상담치유,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대회에서 한국Y가

'성·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넘어 홀로서기' 발표

한국YWCA는 이번 세계대회 회기 중에 열리는 IWS 총회 소분과 토의 세션(breakout session)에서 '성·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넘어 홀로서기'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YWCA는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치유와 자활을 위한 지원활동을 소개하며, 이의 국제운동화를 시도한다. 이미 세계YWCA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예방과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치유 운동인 'VAW(Violence Against Women)운동'을 활동의 한 주제로 삼고 실행 중이다. 세계Y는 4대 운동영역 속에 HIV와 AIDS 예방과 퇴치, 안전한 출산과 건강운동, 정의와 평화운동, 경제적 권한 찾기와 환경보호운동과 아울러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 반대와 인권운동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아 수년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세계YWCA의 폭력예방과 폭력피해여성 치유운동

2008년 10월 세계Y 이사회는 VAW운동을 HIV와 AIDS 퇴치운동에 이은 전 세계YWCA운동의 제2 공식프로그램으로 승인하였다.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잠비아, 스리랑카 등지의 국가YWCA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쉼터와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YWCA는 2009년에 “연간 73여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사망한다”는 <제3 프로젝트: 쉼터의 벽을 넘어(PHASE III PROJECT: Beyond shelter walls)> 보고서를 제출해 캐나다는 물론 세계Y를 통해 전 세계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핀란드, 벨로루시공화국(Belarus), 알바니아, 사모아 등지의 Y에서는 여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세계Y 회원국들 역시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과 정책화, 그리고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YWCA의 VAW운동

한국YWCA는 세계 어느 회원국YWCA보다 활발히 VAW운동을 벌이고 있다. 좀더 확실히 말하자면, 한국YWCA 산하 회원Y의 VAW운동의 역사는 세계Y 이상으로 깊고 그 활동영역 또한 훨씬 넓고 다양하며 구체적이다. 전국적으로 이미 43개의 VAW관련 부속시설이 가동 중인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와 쉼터, 성매매 상담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봉사도 세계 여타의 VAW운동과 비교해 진일보한 운동이며, 절망에 빠진 피해여성들에게 보다 가시적인 삶의 희망을 주는 생명살림의 실천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회원YWCA의 폭력피해여성 지원 사례는 운동을 벌인 지난 수년간의 결과물과 함께 무수히 많다. 다음은 안동



YWCA에서 일어난 일이다.

2008년부터 남편에게서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해온 한 여성이 안동YWCA에 도움을 요청했다. 안동Y는 꾸준한 상담으로 폭력피해여성의 회복을 돕는 한편, 남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구조 활동을 벌였고, 피해여성이 피신할 쉼터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사회적응 프로그램(노인건강체육도우미)에 피해여성을 참여시켜, 사회적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어, 점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은 피해여성에게 노동부에서 후원하는 디딤돌 일자리를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었고, 이후에도 피해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재적응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꾸준히 지원했다. 이와 같이 한국YWCA는 중점운동인 여성인권운동의 한 줄기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방지(VAW)운동’과 상담을 통해 피해여성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능력개발교육을 통해 피해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지원과 보조, 교육을 제공하는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VAW운동 주제

세계YWCA의 120여 회원국 중에서 7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VAW운동과 한국YWCA 산하 40여 개 시설에서 벌이는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운동은 그 사명과 목표가 여러 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VAW운동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

여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YWCA는 바로 그 노하우를 세계와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번 세계Y총회와 ISW 분과 토론회는 이를 알리는 귀한 기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Y가 세계Y와 동역하여 전개할 수 있고 또 전개할 만한 폭력퇴치 관련 국제운동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다.

첫째,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원활동이다. 최근 한국에서 아동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그리 낯설지 않다. 해마다 이와 관련한 통계수치는 늘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 등 충격적이고 대담한 범죄들 역시 연일 뉴스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처나 퇴치방법과 예방법 연구는 여전히 극히 미흡하다. 피해자인 어린 여성들은 몸과 마음이 다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참여해야 하고 재판의 과정을 치르면서 그들이 받는 고통의 깊이와 그 지속적 피해는 전문가도 짐작하기 힘들다. YWCA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상담을 위한 전문 강사 교육과 피해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려 함께 동역한다면, 아동성범죄와 폭력 방지, 폭력 피해자 치유와 재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종교적 이유로 자행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타임>지의 표지에 실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던 코 잘린 아프간 소녀의 사진은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시집을 온 가정에서 남편의 구타와 학대에 시달리다 도망치려는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잡혀 코와 귀를 잘리는 고통을 겪었다. 또한 이슬람권 국가와 힌두교 국가는 가족의 명예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외국인과의 연애를 하거나, 자국민과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 해당 여성을 구타, 심한 경우 화형까지 하는 ‘명예 살인’이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슬람권과 힌두교 국가 세계YWCA 회원국들과 함께 나누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VAW운동을 이끄는 한국Y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는 YWCA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인정받아 왔다. 세계의 여성폭력방지운동을 위해 우리는 전세계 회원국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Y의 폭력피해여성 상담경험과 자활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세계Y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 만연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세상이 세계의 모든 YWCA와 한국YWCA가 꿈꾸는 세상이자 YWCA의 존재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국YWCA의 여성인권운동의 최전방에서 폭력피해여성들의 자활과 자립까지 돕는 역동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다. 한국YWCA의 폭력피해여성 치유와 운동이 이번 Y세계대회 분과발표를 통해 세계Y의 VAW운동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2010-2011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 및 행정정책 (PPT)
- 2009년 2차 YWCA 소장연구 모임-결과 (2009.11.3)
- 2009년도 상담소·쉼터소장연구모임 (2009.3.4)
-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제발굴 활동”
- 세계YWCA 홈페이지 - <http://www.worldywca.org>
- 유엔여성기구(UNWOMEN) - <http://www.unwomen.org>
- Amanda Dale & YWCA Canada, (2009). “제3 프로젝트: 쉼터의 벽을 넘어” (PHASE III PROJECT: Beyond shelter walls) - <http://www.worldywca.org/content/search?SearchText=Beyond+shelter+walls>



나는 즐겁다

● 글 | 김이연 ● 사계절

딱히 하고 싶은 것도, 그렇다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여중생 이란. 우연한 기회로 직장인 밴드 '영양실조'의 보컬을 맡게 되면서 무료하던 그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젊은 작가 김이연의 첫 청소년소설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청춘들의 눈물겨운 분투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내 삶에 찾아온 천사

● 글 | 이승현 ● 랜덤하우스

인생이란 수많은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바람처럼 스치듯 오가는 다정한 눈길, 숨소리, 심장 펄떡임, 가슴 시린 사랑과 용서, 바로 이런 사소한 우연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정교하게 촘촘히 엮여져 탄생하는 어여쁜 배 한 필이 아닐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죄와 자학, 절망과 허무의 속박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되찾고,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다.

폰더 씨의 위대한 결정

● 글 | 앤디 앤드루스 ● 옮김 | 이종인 ● 세종서적

이 책은 2002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의 후속작이다.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는 그 후 많은 독자로부터 '폰더 씨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각기 다양한 이념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지구촌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인류의 문명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곰곰 생각하게 되었고, 세계의 문명이 충돌하는 이 시점에서 개인과 집단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이 명상하다가 쓴 게 바로 이 후속작이다.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 더 나아갈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인생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얻게 되는 이야기이다. 천상의 정상회담 과정이 인상적인 장면으로 자신의 생애 안에 벌어진 비극과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고전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 글 | 송광택 ● 평단

한국의 대표적 독서운동가이며 저술가인 송광택 교수가 인류 역사상 주요 기독교 고전을 두루 섭렵한 뒤 엄선하여 명쾌하게 해설한 책이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 거장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성이 배어 있는 책 내용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다. 꼭 읽어야 할 고전으로 꼽은 40권의 책을 통해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돕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다.

| 구제역 사태 해결을 바라는 한국YWCA 입장 |

구제역 사태, 어머니의 마음으로 땅과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국YWCA는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오염되는 이번 사태가 과도한 욕심이 반영된 우리 삶의 가치관과 생활습관에 대한 경고임을 자각하고 전국 9만여 YWCA 회원이 EM 확산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YWCA는 정부와 지자체에 구제역 사태 해결과 수습을 촉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한국YWCA는 전국의 54개 회원YWCA와 공동으로 EM을 확산하여 구제역 방지에 힘쓸 것이다.

구제역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지자체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3개 거점지역 매몰지 30여 곳을 중심으로 살균효과와 수질정화효과가 입증된 유효미생물균인 친환경 EM(Effective Micro-organism)을 중점 공급하여 축산환경위생 개선과 주변지역 수질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한국YWCA는 친환경 EM 정착으로 향후 구제역 발병을 억제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피해지역 축산농가에 EM 공급과 교육,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위생개선 및 친환경적 축산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 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의 면역개선, 축산폐기물의 발효를 통한 유기 비료화 등 친환경 EM 정착운동과 교류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함께 친환경 축산환경으로 전환하도록 소비자와 생산자 대상의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한국YWCA는 지나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선순환적, 윤리적 소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나친 육류 소비는 반생명적인 생활양식이며, 이는 우리 스스로 반평화적인 방식의 축산농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전지구적 기아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생명 먹을거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여 생명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축은 2011년 2월 13일을 기점으로 약 33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가축 매몰지가 4,400여 곳 이상이다. 축한의 땅속에 발버둥치며 생매장되는 가축들의 처참한 모습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식수와 토양 오염 등의 2차 환경재앙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축산의 현주소이다. 환경피해와 함께 축산경제의 침체로 인한 관련산업 종사자와 피해지역상권의 물가가 요동치고 안전한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 한국YWCA는 구제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안타까움과 위로를 드리며 YWCA 서로살림 먹을

거리운동을 기반으로 전국의 54개 회원YWCA와 함께 구제역 확산방지와 2차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향을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향후 구제역 예방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축산농가재건 및 관계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동원되고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친환경 축산을 권장하는 정책을 실행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가축을 기르는 밀집사육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축산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축산정책, 소비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살처분 매몰지의 위험성 파악과 사후 관리에 주력하라.


정부는 현재 살처분 후 매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급박하게 진행된 살처분은 살아있는 생명을 처참한 방법으로 도살하였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매몰지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YWCA는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는 2차적 재앙을 막기 위해 매몰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강공사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 제한 3년'의 매몰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토양 재활용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연구'에 따르면 매몰된 가축의 사체는 5년이 지나도 완전히 썩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제역의 매몰지로 사용된 토지의 용도제한은 최대 3년이다.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다른 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러한 정책은 추가 환경오염 및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매몰 후 3년이 지나도 오염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3년이라는 용지제한연도를 늘려 사용을 제한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16일
한국YWCA연합회와 54개 회원YWCA 일동

3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삼일절	<p>연합회·회원Y 웰레아침기도회</p> <p>논산Y 어르신 청춘아카데미 개강식 (매주 수.금)</p> <p>부천Y 아이드림센터 민들레공부방 개강</p> <p>여수Y 부모교육 캠페인</p> <p>제주Y 민들레학교 학기 중 전문체험활동(매주 월~금)</p> <p>제천Y 청소년 스쿨밴드 2기 시작</p> <p>진주Y 교육문화센터 봄 학기 개강</p> <p>통영Y 결혼이민여성 민들레학교 개강식</p>	<p>고양Y 문촌9복지관 한글 배움터 개강</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마산Y 결혼이민여성 컴퓨터 마법사 되기(정보화교육)</p> <p>서울Y 영등포센터 일자리 부름 서비스</p> <p>익산Y 이주여성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운영</p> <p>제주Y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행복나무가꾸기'(매주 목, 금)</p> <p>진주Y 다문화도서관 '단비' 개관식</p> <p>파주Y 문화교실 개강</p> <p>포항Y 소망의집 아동영어수업</p>	<p>고양Y 부부상담(매주 금)</p> <p>광주, 청주, 충주Y 세계지도일 예배-우리 가진 것을 나눌 때</p> <p>논산Y 바다위킵 개강 (매주 금)</p> <p>서귀포Y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개강식</p> <p>서울Y 가락복지관 소방안전교육</p> <p>안산Y 장애청소년 여가교실 '두빛나래' 교사 간담회</p> <p>의정부Y 품앗이 공동육아교육</p> <p>제주Y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매주 금)</p> <p>파주Y 가사도우미 교육</p>	<p>남원Y 산모돌보미 배우치업단 발대식</p> <p>대구Y 청소년 민들레 한울 정기모임</p> <p>서울Y 학교폭력 예방교육(국악중)</p> <p>제주Y 민들레학교 경제교육</p> <p>양산Y 어린이 합창단(매주 토)</p>
6	<p>강릉Y 여성희망찾기 프로그램 (~11일)</p> <p>대구Y 청소년센터 직업교육프로그램 POP배우기 (매주 월), 산모신생아도우미 신규자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평방</p> <p>마산Y 부산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모니터(~18일)</p> <p>부산Y 부산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모니터(~18일)</p> <p>여수Y 어린이 경제강사 모임(매경모)</p> <p>의정부Y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개강(월-금)</p> <p>제주Y 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이주민센터 업무협약식 가족친화적인 행복문화 만들기 캠페인 -땀방울, 땀방울 컴퍼니</p>	<p>고양Y 비폭력대화 연습모임(매주 화)</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논산Y 다문화인형극 (매주 화, 목)</p> <p>서울Y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p> <p>익산Y 이주여성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매주 월, 목)</p> <p>안동Y 실버대학 라인댄스반 개강</p> <p>양산Y 도전 한글교실 (매주 화, 목, 요일)</p> <p>전주Y 하나센터 취업지원 이통상담</p> <p>충주Y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p> <p>통영Y 실버한글교실 개학</p> <p>포항Y 소망의집 집단상담</p>	<p>연합회 부속시설 대표 모임</p> <p>광양Y 다문화 종이접기교실</p> <p>양산Y 천연화장품 만들기 동아리 '자연미인'</p> <p>진주Y 노인대학 개강식</p> <p>충주Y 요양보호사 개강식</p>	<p>연합회 Y운동 기획회의</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대구Y 청소년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미술치료)</p> <p>양산Y 도전 한글교실</p> <p>의정부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p> <p>포항Y 소망의집 아동 영어수업</p>	<p>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실무협의회</p> <p>고양Y 문촌9복지관 방과후교실 입학식</p> <p>군산Y 이사·실무자 연수</p> <p>광주Y 산모도우미 웰레회</p> <p>서귀포Y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건강한 차아 만들기 교실</p> <p>순천Y Y양상별 정기모임(18, 25일)</p>	<p>고양Y 가족봉사단 활동</p> <p>마산Y 놀토 돌봄프로그램-아트벽화 그리기</p> <p>서귀포Y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세계자연유산탐방</p> <p>서울Y 강남청소년수련관 글로벌체험 '중남미문화원'</p> <p>수원Y 아자재나가는 토요일(실·비활동)</p> <p>안산Y 청소년문화의집 회원의날 쌍쌍데이 'School DAY'</p> <p>여수Y 토요일-성문화센터 견학</p> <p>전주Y 살림돌보미 회원 보수교육(~19일)</p> <p>천안Y 바다위킵 개강</p>
13	<p>강릉Y 이사·위원 워크샵</p> <p>고양Y 문촌9복지관 재가어르신 자살예방교육 개강</p> <p>마산Y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합동 안전점검</p> <p>사천Y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모집 제4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25일)</p> <p>서귀포Y 집단상담 프로그램-희망을 잡아라 3기</p> <p>서울Y 가락복지관어린이집 심리운동체험</p> <p>포항Y 소망의집 입소자 회의</p>	<p>광주Y 회원 환영의밤</p> <p>청소년경제·금융교육 학교장 간담회</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대구Y 청소년센터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p> <p>수원Y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실 개강</p> <p>안동Y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개강</p> <p>제천Y 장기요양기관 의사소통 교육</p> <p>춘천Y 무료회원특강-미니정원 만들기</p>	<p>광명Y 인형극단 동아리 모임</p> <p>광양Y 다문화 종이접기교실</p> <p>대구Y 자활근로아카데미 및 자활근로사업단 월례회</p> <p>동해Y 씽크머니 협력학교 학교장 간담회</p> <p>수원Y 알음알음 나눔장터</p> <p>포항Y 상담소 가정폭력 예방캠페인</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수원Y 본지부 실무자 1분기 포럼</p> <p>춘천Y 창립 45주년 음악회</p> <p>포항Y 소망의집 한방진료서비스, 아동영어수업</p>	<p>광주Y 의류분쟁조정위원회</p> <p>인천Y 신입 이사·위원 훈련(~19일)</p> <p>사천Y 베틀년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p> <p>전주Y 전통시장 농산물 캠페인</p>	<p>광주Y 유해환경 감시단 캠페인</p> <p>부천Y 독거어르신 말반찬 배달 서비스</p> <p>서울Y Y인 협의회·대학Y 협의회</p> <p>안산Y 다문화가정 배우자교육</p> <p>여수Y 멘토멘티 활동</p> <p>원주Y 사랑의 우체국 발대식</p> <p>천안Y 참사랑간병회 월례회</p>
20	<p>광주Y 돌봄과 살림 전환교육(~25일)</p> <p>마산Y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평방</p> <p>서귀포Y 가정관리사 신규교육</p> <p>서울Y 특별행사 '광화문연가'</p> <p>제주Y 어린이집 도로교통안전교육</p> <p>진해Y '아름바리꾼(리플교실)' 모집</p> <p>춘천Y 산모·신생아 돌보미 신규자 양성교육</p>	<p>연합회 제1차 사무총장 협의회</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동해Y 씽크머니 강사모임</p> <p>여수Y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화, 목)</p> <p>광명Y 학생유치원 어린이 성폭력 예방 인형극</p> <p>인천Y 신입실무자 훈련</p> <p>전주Y 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p> <p>청주Y 성인클럽 민들레 인준식</p>	<p>고양Y 문촌9복지관 사랑의 쌀 지원, 어르신 생신잔치</p> <p>광양Y 다문화 한글교실</p> <p>대구Y 청소년센터 심리검사,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식</p> <p>동해Y 어르신 소비자교육</p> <p>마산Y 가족사랑의 날</p> <p>원주Y 씽크머니-육민관 중학교</p>	<p>광주Y 봄 장날(~25일)</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사천Y 결혼이민여성 임신·출산교실</p> <p>서울Y 시민과 함께하는 EM교실</p> <p>순천Y Y합창단 발대식</p> <p>천안Y 정기바자회</p>	<p>대구Y 성인클럽 인준식</p> <p>부산Y 청소년센터 거리캠페인</p> <p>부산Y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p>	<p>군산Y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p> <p>대구Y 사랑더하기나눔은희망 멘토멘티 프로그램 3차 정기모임</p> <p>마산Y 가족봉사단 무료급식소 봉사활동</p> <p>서귀포Y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베틀시장</p> <p>서울Y 강남청소년수련관 청소년봉사활동단 발대식</p> <p>안산Y 청소년 리더십 교육 캠프(~27일)</p> <p>진주Y 대학Y 토론회</p> <p>청주Y 아너비바다 거리장터·어린이 생태학교 개강</p>
27	<p>서귀포Y 집단상담 프로그램 '희망을 잡아라' 4기</p> <p>서울Y 평생회원아카데미</p> <p>순천Y 돌봄과 살림 취업교육(~31일)</p> <p>의정부Y 2011년 산모돌보미/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개강, 구직지원 월례회의 및 재교육</p>	<p>광주Y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 조사 자문위원회</p> <p>남원Y 가정방문영어강사 직업기초능력교육</p> <p>논산Y 씽크머니 금융교실 사업설명회·센터장 간담회</p> <p>마산Y 돌봄과 살림 월례회</p> <p>서울Y 이사·위원 연구모임</p> <p>포항Y 회원증도 발대식</p>	<p>강릉Y 간병사 보수교육</p> <p>광양Y 다문화 한글교실</p> <p>대구Y 청소년센터 인권교육</p> <p>부산Y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활성화 캠페인</p> <p>안산Y 다문화 이해교육</p>	<p>연합회 YWCA 정기포럼</p> <p>서울Y 씽크머니-입구정중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삼성꿈장학재단 장학증서 전달식</p> <p>포항Y 소망의집 아동 영어수업</p>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출범과 정기총회 개최



2011년 1월 28일자로 한국YWCA연합회는 사단법인 등기를 마치고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첫 번째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원YWCA 회장과 사무총장, 연합회 실행위원과 명예연합위원 등이 참석해 법인 설립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였다. 또한, 구지역 관련한 입장을 표명(성명서 참조, p.39)하고 전국 축산농가에 EM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강릉YWCA 정회원 승격과 세계대회에 참가할 정대표 6명, 방청대표 12명을 인준하였으며 제38회 전국대회 일정과 장소, 시상안을 확정하였다.

신임회장 연수



지난 2월 9일부터 이를 동안 대전에서 회원YWCA 신임회장 15명, 선배 회장, 연합회 회장단 및 실무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 연수가 진행되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교자 연합회 회장이 주제 강연을 하였으며, Y회장 리더십 다지기, 사례 나눔 등을 통해 회장으로서 비전과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YWCA 월례아침기도회



한국YWCA연합회는 2월 1일(화) 오전 7시 30분에 연합회 강당에서 첫 번째 YWCA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강교자 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었고 연합회 이사, 위원,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YWCA 월례아침기도회는 연합회와 전국 회원YWCA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도회로 YWCA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해야 할 문제들을 바라보

고 헌신과 결단하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다. 지난 2월 1일 첫 번째 기도회는 중곡교회 이천진 목사의 말씀과 함께 연합회 실행위원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찬양이 어우러지는 자리였다. 이천진 목사는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에 귀 기울이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YWCA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한국YWCA와 연합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YWCA 대표단 참가



전 세계의 YWCA 자매들이 뉴욕의 UN 제55차 여성지위위원회(CSW)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월 20일, 한국 YWCA는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과 이슬비 운동국 간사를 YWCA 대표단에 파견했다. YWCA 대표단은 타 대표단과 만나 다양성과 연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다. NGO 행사(NGO parallel events) 중 '폭력 반대 연합', '세대 간 대화' 등에 패널로 참석하여 YWCA의 활동과 비전을 발표하였다. 올해 CSW의 쟁점은 교육, 훈련, 과학 기술 등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는 취업 등에서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YWCA의 핵심 이슈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의 투자 증대이며, 이는 특히 모

든 폭력과 HIV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회서비스 우수기관으로 4개 회원YWCA 선정

20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평가에서 강릉, 대구, 안산, 전주YWCA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통해 전자 바우처 사업의 발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힘을 쏟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씽크머니 강사교육



YWCA 씽크머니 금융강사교육 기초과정 이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버들캠핑장에서 진행되었다. 19개 회원YWCA에서 참가한 66명의 예비강사들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천규승 박사의 금융교육의 중요성, 서울교대 김종호 교수의 금융교실 내용이해와 계획, 양오초등학교 김술 교사와 고은경 씽크머니 우수강사의 대상별 금융교실 맛보기와 나의 금융교실 완성하기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공부하고 강의 실습도 직접 해보았다. 또한 강사 사명서 작성을 통해 YWCA 씽크머니 강사로서의 비전을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의 금융강사교육 기초과정은 2월

과 7월, 총 2회 기획되었는데 특별히 초등과 중등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더 많은 예비강사들이 참석했다. 금융강사교육 심화과정은 8월 초에 2박 3일간 현재 활동 중인 씽크머니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실시

삼성생명이 제안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화장실과 조리실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과 안전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개보수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광주, 울산,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7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동정

- 원주YWCA 사무총장에 박은경 씨가 취임하였다.
- 문복희 연합회 실행위원이 네 번째 시집 '별 이야기(형설출판사)'를 발간했다.
- 안인덕 연합회 실행위원 모친이 지난 2월 20일 소천하였다.
- 함희경 연합회 실행위원 부친이 지난 1월 12일 소천하였다.

경기 지역

고양 YWCA ●이혜경 간사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개관15주년 기념행사

고양YWCA는 2월 22일 일산그랜드시네마에서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로 기획하여 기념예배와 기념식 후 '서유석과 함께하는 축하음악회', 영화 '올지마 톤즈' 상영 등으로 진행하였다.

- 2월 중 하나로문화센터 유화·수채화반 회원작품전시회
- 2월 18일 고양YWCA어린이집,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수료 및 졸업식
- 2월 24일 조순일 사무총장 정년퇴임식

광명 YWCA ●김진숙 간사

광명성애병원 봉사자 교육

지난 2월 14일 광명성애병원에서 자원봉사자 교육과 병원 라운딩을 가졌다. 광명YWCA 자원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태도와 친절함으로 감동을 나누었다.

- 2월 15일 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원지도자 교육
- 2월 17일 키즈어린이집 성폭력예방 교육
- 2월 25일 직원 워크숍(~26일)

수원 YWCA ●이민정 간사

'아재 신나는 토요일'

수원YWCA에서는 2월 12일 어린이 놀토 프로그램 '아재 신나는 토

요일'을 진행하였다. 어린이 30여 명이 참가하여 한국어 신문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 2월 12일 2011년도 Y-틴, 청소년지도자 임원훈련
- 2월 16일 나눔장터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신임실무자교육

신임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2월 18일과 23일 YWCA의 역사와 구조, YWCA의 정체성과 운동, 안산YWCA와 지역운동, 행정실무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 2월 10일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
- 2월 12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원의 날 쌍쌍데이 'Second DAY', 방과후아카데미 토요체험 '만화규장각'
- 2월 14일 가사도우미 양성교육(~18일)
- 2월 15일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
- 2월 18일 신임실무자 교육, 영화와 논술의 만남 (영화논술지도사 교육)
- 2월 23일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 2월 26일 방과후아카데미 토요체험 '사계절 썰매'

의정부 YWCA ●윤소영 간사

무료 풍선아트 교육

의정부YWCA는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풍선아트 특강 '우중란과 함께하는 유쾌, 상쾌 풍선아트'를 시작하였다. 매주 토요일 회원 간의 친목과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 2월 11일 품앗이 공동육아교육(매주 금)
- 2월 28일 구직회원 월례회의 및 재교육

동부 지역

김해 YWCA ●배정숙 간사

자기주도학습 행복강좌 무료특강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김해Y 강당에서 3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복강좌 무료특강을 열었다.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 이번 특강은 자기주도학습 분야 명강사로 알려진 일신산업 하기성 회장이 진행해 시간관리와 부모 역할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지도자 위촉식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월 25일 2011년 지도자 위촉식을 가졌다. 센터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의식교육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시간제 강의로 함께하기 힘든 지도자들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위원·실무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위촉장 수여 및 시상,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산 YWCA ●한민경 간사

다문화가정 '모자공감'~우리집 문패 만들기

마산YWCA의 다문화가정 소통 프로그램 '모자공감'에서 2월 10일 '우리집 문패 만들기'를 진행했다. '모자공감'은 결혼이민여성과 자녀의 소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산재단의 후원으로 2010년 10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다문화가족 30가정을 대상으로 꾸려지고 있다.

- 2월 8일 다문화 한글반 개강식

- 2월 10일 산모와 신생아 돌보미 월례회
- 2월 24일 결혼이민여성 전통공예관 견학

양산 YWCA ●이은주 간사

도전! 한글교실

2월 한 달 매주 화, 목요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중·장년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한글교실은 30여 년 만의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호응과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참가자들은 '황혼 무렵에야 배움의 한을 풀었다'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준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 2월 중 천연화장품 만들기 '자연미인'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생협법 개정에 따른 부산YWCA 생활협동조합 법인설립 창립총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YWCA 생활협동조합은 2월 25일 강당에서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 규약, 사업계획을 채택하고 조합원을 대표할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였다. 부산Y생협이 새롭게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2월 17일 부산Y생협 친환경 된장 만들기 체험
- 2월 18일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개소식
- 2월 20일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합동결혼식

사천 YWCA ●문은자 간사

사천Y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항공공사와 협약식

지난 2월 17일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센터 내의 시설관리와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과 청소년 해외캠프 추천, 다문화가정 환경개선 지원 등 업무협력을 해나가

기로 했다.

- 2월 18일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실 교사 간담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
- 2월 21일 지역아동센터 남일대체육공원 야외학습
- 2월 23일 결혼이민여성 인턴 및 방문교육종사자 채용면접
- 2월 24일 어린이 경제교실,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상담자원봉사자 자조모임

안동 YWCA ● 김희정 간사

다문화 자조모임 개강

안동YWCA는 2월 14일 다문화 자조모임을 시작하였다. 평소 한글교실을 통해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던 다문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댄스를 배우는 한편 지역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월 9일 생활체조(요가)교실 개강

울산 YWCA ● 김선양 간사

씨밀레 개소 5주년 기념식

지난 2월 21일 울산YWCA 씨밀레는 5년간의 실적보고와 활동영상 상영, 성매매 피해여성 증언 영상을 통해 목소리를 들으며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 2월 22일 전직원 연수

진주 YWCA ● 최예진 간사

2월 YWCA아침기도회

2월 1일 오전 7시 30분 실무자, 이사 등 12명이 모여 아침기도회를 가졌다. 정들연 회장의 인도로 영상 말씀을 듣고, 한국YWCA와 진주YWCA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 2월 12일 동부지역 Y-틴협의회

진해 YWCA ● 조혜원 간사

이웃돕기 의류바자회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하여 팔로마 패션의 후원을 받아 의류바자회를 열었다. 진해Y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뜻 깊은 자리였다.

포항 YWCA ● 김효정 간사

가정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

포항Y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2월 22일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2월 16일 직원연수(~18일)
- 2월 17일 소망의집 한방진료서비스
- 2월 21일 소망의집 입소자 회의 및 소방안전교육
- 2월 10일 가정폭력상담소 사업설명회
- 2월 22일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강릉 YWCA ● 전정미 간사

회장 이·취임식

강릉YWCA는 지난 1월 31일 경포현대호텔에서 이철 목사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를 시작으로 제11·1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 2월 24일 지역 어르신 무료식사(매주 목), 가사도우미 보수교육, 실무자교육

서울 YWCA ● 박서영 간사

탄자니아 IT 봉사활동

18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원과 함께 지난 1월 21일부터 20일 동안 탄자니아 음쭌베 대학교와 굿네이버스 직업훈련학교에서 IT교육 봉사활동을 하였다. 소프트웨어 관련교육과 컴퓨터 분리 및 조립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컴퓨터 수리팀은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주었으며, 모금으로 준비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컴퓨터실을 만들어주었다. 마지막 날은 마을 축제를 열어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페이스페인팅, 배구 등을 함께하며 인종·국가·나이를 뛰어넘어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 2월 23일 제34회 서울Y 포럼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최
- 2월 24일 제5차 아시아 여성인권 프로젝트 태국 현장활동보고

인천 YWCA ● 김주희 간사

제17대 회장 취임식

지난 2월 17일 인천YWCA 제17대 장정희 회장 취임식이 열려 인천 청학감리교회 김효원 목사의 '충성된 중'이라는 말씀을 통해 YWCA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졌다.

춘천 YWCA ● 황재욱 간사

직원해외연수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으로 직원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춘천과 속초YWCA에서 총 10명이 동경YWCA를 방문하여 교류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2월 14일 가사 돌보미 신규자 양성교육(~18일)
- 2월 15일 얼굴축소·피부와 어깨 마사지 무료회원특강



광양 YWCA ● 정환숙 간사

교복 물려주기 행사

광양YWCA는 2월 18일 아나바다 나눔장터에서 광양YWCA, 광양YMCA, 광양교육연대, 광양진보연대, 아름다운가게, 광양만녹색연대 연합 합동주관으로 광양시 관내 중학교(13개), 고등학교(8개) 졸업생들의 교복을 기증받아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가졌다. 판매 수익은 전액 기부하였다.

광주 YWCA ● 손유영 간사

회원증모운동 시상식

지난 2월 9일 회원증모운동 시상식이 있었다. 이사, 위원, 직원들의 노력으로 회원목표 104%, 회비목표 117%포인트를 초과해 회원 총 4,694명, 회비 총 2억3천4백 만 원을 달성하였다.

- 2월 7일 직업개발부 돌봄과 살림 월례회
- 2월 12일 청년, 대학Y 클럽임원, 회원 만남의 광장 및 클럽회원 모집활동
- 2월 14일 직업개발부 드림헬퍼 월례회
- 2월 15일 소비자상담실 씽크머니 자문위원회, 의류분쟁조정위원회, 어린이집 졸업식
- 2월 17일 신입직원교육
- 2월 19일 Y-틴 임원 및 회원 훈련
- 2월 28일 성인 제2클럽 두레산악회 임원 및 신대원훈련

군산 YWCA ● 김선화 간사

평화중고등학교 졸업식

군산YWCA부설 군산평화중고등학교는 지난 2월 21일 졸업식을 치렀다. 평화중고는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산시뿐 아니라 충남 서천, 장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성인들로 구성된 학교로 일명 만학도 학교라고 불리운다.

- 2월 18일 어린이집 졸업식

남원 YWCA ● 조윤희 간사

‘신나는 공부방 수학교실’

신나는 공부방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8일 수학교실을 진행하였다. 전문강사의 재미있는 강의를 통해 아이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던 수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월 7일 산모돌보미 ‘아기사랑’ 민들레모임
- 2월 15일 어린이 성교육
- 2월 22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목포 YWCA ● 정현정 부장

10년 근속 직원연수

목포YWCA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일대를 다녀왔다.

- 2월 24일 목포Y어린이집 제19회 졸업식

서귀포 YWCA ● 김지희 간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희망을 잡아라’ 2기 개강식

서귀포Y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월 14일 경력단절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희망을 잡아라’ 과정 2기 개강식을 열었다. ‘희망을 잡아라’는 구직여성의 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주부재취업설계 및 직업진로 지도 프로그램으로 2월 14일부터 5일 동안 총 20시간 실시되었으며, 수료생은 향후 서귀포Y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 YWCA ● 김아라 간사

순천Y와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순천YWCA는 생명살림운동의 하나로 기획한 ‘아름다운 토요일’을 통해 Y-틴, 대학Y, 위원과 이사가 함께 참여해 기증받고 후원받은 물품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에 친환경적 생활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 2월 5일 대학Y 회원 동계 수련회(~6일)
- 2월 10일 본부·부속시설 전직원 연수(~12일)

여수 YWCA ● 박진희 간사

이주여성쉼터 입소자 미술치료

여수YWCA이주여성쉼터에서는 2월 8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3월 15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될 이번 미술치료는 언어문제, 우울, 향수병, 부부갈등, 불안, 시부모와의 갈등, 자녀 문제 등 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미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 변화와 미래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 2월 8일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신입관장 취임감사예배
- 2월 9일 이주여성입소자 부부상담
- 2월 10일 환경지킴이(졸업식 뒷풀이 예방활동), 민들레마을(주) 임원·주주회의
- 2월 12일 늘푸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랑+나눔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 2월 14일 산모바우처사업간담회, 어린이경제강사모임(애경모)
- 2월 15일 살림돌보미 월례회의, 이주여성입소자 미술치료
- 2월 22일 고령자 내부간담회, 이주여성입소자 미술치료
- 2월 24일 학동 유흥업소 아웃리치
- 2월 26일 Y-틴 봉사활동(장애인시설), 토요일체험(쿠킹키즈)

전주 YWCA ● 김은진 간사

초등학생 자기주도적 학습클리닉 ‘꿈바라기’

전주YWCA 청소년지원센터는 2월 23일부터 이틀 간 초등학생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클리닉 ‘꿈바라기’를 운영하였다. ‘꿈바라기’는 캠프형 집단상담을 통해 꿈을 찾고,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습성취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 2월 16일 보름 재래시장 농산물 캠페인
- 2월 17일 제20회 어린이집 졸업식
- 2월 20일 해외직원연수(~24일)

제주 YWCA ● 강지혜 간사

천사들의 신나는 페스티벌

제주YWCA는 지난 2월 12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10회 YWCA 어린이 발표회를 열어 부모님 앞에서 그 동안 준비했던 율동, 악기 연주, 영어 동극, 합창 등을 발표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 2월 10일 민들레학교
- 2월 17일 통합상담소 제주서부경찰서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 2월 21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희망프로그램’



대전 YWCA ● 강은혜 부장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내 마음의 창문열기

지난 1월 18일부터 이틀 간, 1월 22일부터 3일 일정으로 대전YWCA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겨울캠프를 열었다.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보금자리를 튼 16개 다문화가정 등 총 41명이 참가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경청하고 부부가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2월 17일 인문학강좌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깊이 읽기' 증강

논산 YWCA

● 김화선 간사

싱크머니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

논산YWCA는 2월 29일 싱크머니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논산지역 15개의 지역아동센터장이 참여해 싱크머니 사업개요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2011년 싱크머니 주제인 '내손안의 어머니'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실제적인 용돈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 캠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천 YWCA

● 류인숙 간사

신임회장 이취임식

2월 17일 제24회 정기총회에서 김숙자 신임회장이 선출되어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다. 김숙자 신임회장은 제천Y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 2월 8일 가정보육서비스 실시
- 2월 14일 도배사 교육 실시
- 2월 22일 신규 가사돌봄 8기 교육

청주 YWCA

● 정미향 간사

아이쿱(icoop)청주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회

청주YWCA는 지난 2월 10일 조합원 33명이 모인 가운데 아이쿱(icoop)청주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는 4월 9일 아이쿱청주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칭) 법인 설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로 결의하고 전국 회원YWCA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 2월 12일 Y-틴 센터클럽 '온누리' 'Who am I- 나의 직업흥미 찾기'
- 2월 23일 생협 법인설립 및 회원증모운동을 위한 이사·위원 연구모임
- 2월 26일 예비대학생 및 대학생 대상 특강 '대학 뚫고 하이킥'

충주 YWCA

● 김애영 간사

즐거운 방학교실 증강식

충주YWCA에서는 겨울방학동안 맞벌이로 자녀의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즐거운 방학교실의 증강식이 있었다. 하루 평균 25명 정도의 초등학교생이 참여하여 점핑클레이, 경제교육, 체험활동, 부진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며 의미 있게 겨울방학을 보냈다.

- 2월 1일 즐거운 방학교실 증강식
- 2월 21일 살림돌보미 신입교육(~23일)
- 2월 26일 유소년 문화체험 '민속놀이'

Be Waterful
LANEIGE



NEW

피부 결점도, 바른 흔적도
수분으로 감쪽같이!

바를수록 피부가 되는
라네즈 워터 수프림 파운데이션

바르는 순간 피부 결점도, 칙칙함도 수분과 함께 싹 스며드는
라네즈 워터 수프림 파운데이션- 이제 얼굴 위에 자신감만 남기세요

AMOREPACIFIC CORPORATION
New Beauty, Collective Innovation

22nd
World Congress of Dermatology
Seoul 2011

PLATINUM SPONSOR

(주)아모레퍼시픽은 제22차 세계피부과 학술대회 공식 후원사로 활동합니다